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가?

“내 이름은 패트릭이야... 나는 포로로 잡혀서... 아일랜드에 포로로 잡혀갔어”

부에서 빈털터리로. 누군가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가족에서 고립으로.

격동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엎는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핵심까지 흔들며 우리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행해진 일과 우리를 해친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을 훔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지구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나는 시간의 바퀴에 있는 허무한 존재인가, 존재의 우연인가?

가장 깊은 트라우마에서 당신을 들어올릴 수 있는, 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삶(노예)에 목적의식을 줄 수 있는 위대한 것을 상상해 보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강력한 것, 당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을 상상해 보라.

성패트릭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자신에게 가해진 해악이나 자신이 잃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흙 속에 깊이 누워 있는 돌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권능 있는 분이 오셔서 자비로 나를 끌어내어 들어올려 벽 꼭대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위대한 선행에 대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성패트릭의 고백)

1,500년 전 성패트릭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로 아일랜드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 관계, 야망, 오락, 소셜 미디어 프로필, 성적 취향 등에 자아감을 고정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연약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패트릭처럼 우리가 생명수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10**)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정체성의 비밀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찾을 수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